



MBK파트너스,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계약 체결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MBK파트너스와 ING 그룹은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(SPA)을 8월 26일 체결함.
 - MBK파트너스는 ING생명 지분 100%를 16억 달러(약 1조 8,000억 원)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며, ING 그룹은 1,200억 원을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에 재투자하여 10%의 지분을 유지하기로 함.
 - MBK파트너스와 ING 그룹은 국내에서 ING생명 사명을 향후 5년간 사용하는데 합의하였고, ING 그룹은 1년간 지속적인 조언과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.
 - MBK파트너스는 ING생명을 전문경영진이 운영하는 독자적인 기업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힘.

- MBK파트너스는 인수자금 중 주식지분 형태의 투자로 1조 원, 나머지 8,000억 원은 증권사와 은행 등 3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기로 함.
 - 자기자본 1조 원 중 6,800억 원은 대부분 MBK 3호 펀드에서 출자하기로 하였고, 캐나다 PSP인 베스트먼트가 2,000억 원, ING 그룹의 재투자 형식으로 1,2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임.
 - 6,800억 원 중 일부는 국내연기금의 투자가 예상됨.
 - 대출 금융기관으로 우리투자, 하나대투증권, KB국민은행 등이 거론됨.

- ING생명은 ING 그룹의 구조조정에 따라 2016년까지 매각 또는 그룹 분리가 예정되어 있음.
 -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ING 그룹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보험사업을 매각하고 있음.
 - 아시아 보험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매각되었고 현재 일본 보험사업 부문만 남아있음.

- MBK 파트너스와의 계약은 체결까지 3주가 소요되면서 이전의 인수협상에 비해 큰 무리 없이 진행됨.
 - 인수 가격으로 21억 달러를 제시하였던 KB금융그룹과의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, KB금융그

를 사외이사들의 인수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결렬되었음.

- 2013년 6월 동양생명과의 협상에서는 동양생명-보고펀드가 인수 희망자였던 MBK, 한화생명, 교보생명을 제치고 인수 협상권을 얻었으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으로 계약체결에 실패
- MBK는 2013년 6월 첫 번째 인수 협상에서는 ING생명의 90%를 인수하는데 1조 6,00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, 8월 인수 협상에서는 ING생명 전체를 인수하는데 1조 8,000억 원을 제시하였으며, 고용 안정을 보장하여 노동조합의 반대에 대응함.

■ **인수가격 하락, ING생명 브랜드 사용, 양호한 영업기반 등은 인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.**

- MBK는 기존 인수 가격보다 약 4,000억~5,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, 5년간 ING생명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됨.
- 2013년 3월 기준 총자산 23조 3,390억 원, 자기자본 2조 5,300억 원으로 생명보험업계 5위 규모, 우수한 브랜드 인지도, 상품개발능력, 양호한 영업기반 구축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힘.
 - 2012회계연도 당기순이익 1993억 원을 기록하였고, 위험기준자기자본(RBC) 기준 지급여력 비율도 323.6%로 업계 상위권임.

■ **그러나 인수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사모펀드라는 점, 고용안정 문제, 기업가치 저하 등은 금융당국의 승인 이후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.**

- 인수자가 사모펀드이므로 ING생명을 다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, 고용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기되지 않은 점은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될 것 같음.
- ING생명의 매각 지연으로 계약 유지율 하락, 마케팅 활동 위축, 시장점유율 하락, 운영자산이익률 하락은 ING생명의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.
-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가 사모펀드인 만큼 대주주 변경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자금조달 구조는 물론, 단기투자목적으로 들어오는 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힘.

(Wall Street Journal, 연합뉴스 8/27)